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의 실무경력에 따른 직무분석

이수민^{1,*} · 이재은² · 전해정^{3,†}

¹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국제뷰티아트과, 교사

²성결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객원교수

³성결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교수

(2021년 3월 24일 접수: 2021년 4월 19일 수정: 2021년 4월 21일 채택)

Job analysis according to the working experience of medical skincare workers

Su-Min Lee^{1,*} · Jae-Eun Lee² · Hae-Jung Chon^{3,†}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eauty Design, Seoseoul Life Science High School, guro-gu, Seoul, Korea

Department of Beauty Design, Sungkyul University, Anyang-si, Gyeonggi-do, Korea

(Received March 24, 2021; Revised April 19, 2021; Accepted April 21, 2021)

요약 : 본 연구는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의 실무 경력에 따라 직무의 적합도와 중요도, 빈도,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현장에서 효율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방법으로 빈도 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일원 변량 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의 실무경력에 따른 직무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피부미용 전공 교육이 메디컬 스킨케어에서 스킨케어 직무에서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직무의 실제 현장에서 빈도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았고, 실무 경력에 따라 난이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 미용 산업이 성장할수록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들의 직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전문성 있는 직무로 체계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 직무 적합도, 중요도, 빈도, 난이도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y empirically analyzing whether the suitability, importance, frequency, and difficulty of the job depends on the practical experience of medical skincare worker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help efficiently perform the duties in the field. As analysis methods, frequency, factor, reliability analysis, and one-way ANOVA analysis were conducted. After looking at the suitability of the job according to the working experience of medical skincare workers, it was confirmed that skin beauty education was being used appropriately in the

[†]Corresponding author

(E-mail: hichons@hanmail.net)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University.

* 이 연구는 2020년 석사논문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됨.

skincare job in medical skincare. The higher the frequency at the actual site of the job, the higher the importance, and the more difficult it was depending on the working experience. As the medical beauty industry grows, various studies on the jobs of medical skincare workers should be conducted to systematize them into professional jobs.

Keywords : Medical Skin Care Job, Job Suitability, Importance, Frequency, Difficulty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욕구의 증가로 외모 변화에 대한 노력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노력들은 화장 기술, 성형수술, 피부관리, 헤어스타일링, 의복 스타일링, 다이어트 등을 통해 자신을 변화하고 향상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획득할 수 있다[1].

외모 만족에 대한 욕구들이 증가하면서 피부의 과학적 치료와 미용 성형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되어 메디컬 스킨케어라는 형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은 1998년 처음 대한피부과 개원의협회가 발족되면서 여러 차례의 심포지엄을 통하여 피부과 병원에서 피부미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2]. 피부에 대한 생리, 병리학적 이해도의 증가와 레이저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치료술의 발전으로 과거 병원에서의 피부 질환에 대한 접근이 알레르기나 상처에 대한 약물치료, 소독 항생제 치료 등의 근대적 접근을 지나 노화, 색소질환의 치료, 여드름의 치료와 아토피를 포함한 염증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메디컬 스킨케어가 도입되었다[3]. 또한 현재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항노화, 항산화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의학적으로 젊음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저 시술과 보톡스나 필러와 같은 미용 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메디컬 스킨케어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실태 및 현황에 관한 연구[4],[5], 메디컬 스킨케어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 및 개선방안[6], 메디컬 스킨케어 전공자들의 직무와 서비스 품질[7],[8],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서비스[9]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고객 중심으로 실무 종사자들의 직무를 연구한 것은 메디컬 스킨케어의 교육과정[10], 메디

컬 스킨케어 실무 직무[11] 논문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메디컬 스킨케어가 계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성형, 피부, 빠티 시술, 비만관리 등의 메디컬 스킨케어가 미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료미용서비스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은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들의 직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직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분석이 가능한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기법을 사용하였다. DACUM을 활용한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분석 연구로는 병원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직무분석 연구[12],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직무분석 연구[13]가 있었다. 이러한 직무 분석을 통해 직무의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분명해지고 조직체계가 확립되며, 보다 능률성 있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11].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직무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받고 실무 종사자들에게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에 대한 적합도 및 중요도, 빈도, 난이도를 조사하여 그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1.2. 연구목적

-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의 실무 경력에 따른 직무의 적합도를 확인한다.
-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의 실무 경력에 따른 직무의 적합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의 실무 경력에 따른 직무의 중요도와 빈도,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의 실무 경력에 따른 직무의 적합도 및 중요도, 빈도,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서 메디컬 스킨케어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2020년 4월 20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4주간 이루어졌으며,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표집하였다. 표집된 335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 4부를 제외한 총 33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데이컴(DACUM)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되어 타당도를 분석하여 검증된 9개의 직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도출된 직무에 대한 적합도 및 중요도, 빈도, 난이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Scheffe의 다중 범위 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2.4. 자료분석

통계적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version 21.0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통계적 분석 방법은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처리하였으며, 실무 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적합도와 중요도, 빈도, 난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방법을 실시하였다. 또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실무 직무 적합도, 메디컬 스킨케어 실무 경력에 따른 적합도 및 중요도, 빈도, 난이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직무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도와 난이도를 곱하여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산출하였다. 직무의 결정계수가 높을수록 중요하고 이것을 수행하는 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여 분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100.0%이었고, 연령은 '30-34세'가 39.6%, '25-29세' 38.1%, '20-24세' 15.4%, '35-39세' 4.5%, '40-44세' 2.4%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재학 및 졸업'이 63.7%, '고졸' 16.9%, '대학교 재학 및 졸업' 16.6%, '대학원 이상' 2.7% 순이었으며, 직위는 '관리사'가 55.9%, '병원코디네이터' 22.7%, '간호조무사' 16.6%, '기타' 4.8%순으로 나타났다. 실무 경력은 '3-5년 미만'이 31.4%, '5-9년 미만' 30.8%, '3년 미만' 21.1%, '9년 이상' 16.6% 순이었고, 근무지는 '피부과' 87.9%, '성형외과' 12.1%이었다. 현 근무지 경력은 '3년 미만'이 65.3%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은 30.2%, '5-9년 미만' 2.7%, '9년 이상' 1.8% 순으로 조사되었다.

3.2.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 적합도의 차이

실무 경력에 따라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적합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메디컬 스킨케어와 병원 립셉션 실무',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 분석', '메디컬 스킨케어 케어', '메디컬 비만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 스킨케어와 병원 립셉션 실무'는 실무경력이 3년 미만($M=4.89$), 9년 이상($M=4.65$), 3-5년 미만($M=4.52$), 5-9년 미만($M=4.52$) 순으로 3년 미만 경력자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으며 ($F=10.046$, $p < .001$),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 분석'은 실무경력이 3년 미만($M=4.71$), 3-5년 미만($M=4.55$), 5-9년 미만($M=4.50$), 9년 이상($M=4.42$) 순으로 3년 미만 경력자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고, 9년 이상 경력자의 적합도가 가장 낮았다($F=3.633$, $p < .05$). '메디컬 스킨케어 케어'는 실무경력이 5-9년 미만($M=4.40$), 9년 이상($M=4.29$), 3년 미만($M=4.04$), 3-5년 미만($M=4.01$) 순으로 3년 미만 경력자의 적합도가 가장 낮았으며($F=6.519$, $p < .001$), '메디컬 비만관리'는 실무경력이 9년 이상($M=4.09$), 5-9년 미만($M=4.09$), 3-5년 미만($M=3.83$), 3년 미만($M=3.57$) 순으로 3년 미만 경력자의 적합도가 가장 낮았다($F=7.605$, $p < .001$).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 적합도의 차이를 살펴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31)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Female	331	100.0
	male	0	.0
Age	20-24 years	51	15.4
	25-29 years	126	38.1
	30-34 years	131	39.6
	35-39 years	15	4.5
	40-44 years	8	2.4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ion	56	16.9
	College graduation	211	63.7
	University graduation	55	16.6
	Graduate graduation or higher	9	2.7
Job	Nurse's aide	55	16.6
	Hospital coordinator	75	22.7
	Esthetician	185	55.9
	etc	16	4.8
practical experience	Less than 3years	70	21.1
	Less than 3-5years	104	31.4
	Less than 5-9years	102	30.8
	More than 9years	55	16.6
Place of work	Dermatology	291	87.9
	plastic surgery	40	12.1
	Total	331	100.0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3.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중요도, 빈도, 난이도 차이

3.3.1.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중요도 차이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중요도는 '메디컬 스킨케어 레이저·관리기기 및 실무'와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 '메디컬 스킨케어 케어', '메디컬 비만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 스킨케어 레이저·관리기기 및 실무'($F=5.908, p<.01$)는 3년 미만 경력자의 중요도가 가장 낮았으며,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F=2.766, p<.05$)는 9년 이상 경력자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3-5년 미만 경력자의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메디컬 스킨케어 케어'($F=3.368, p<.05$)는 3년 미만 경력자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메디컬 비만관리'($F=8.565, p<.001$)는 9년 이상 경력자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Differences in the suitability of medical skincare jobs based on working experience

Classification	Less than 3years (N=70)		Less than 3-5years (N=104)		Less than 5-9years (N=102)		More than 9years (N=55)		F	p
	M	SD	M	SD	M	SD	M	SD		
Practice of Medical Skin Care & Hospital Reception	4.89 a	.32	4.52 b	.50	4.52 b	.56	4.65 b	.48	10.046***	.000
Medical Skin Care Skin analysis	4.71 a	.46	4.55 ab	.59	4.50 ab	.50	4.42 b	.57	3.633*	.013
Medical Skin Care Laser and management equipment and practice	4.70	.55	4.61	.49	4.59	.49	4.60	.49	.776	.508
Medical Skin Care Skin scaling (Peeling)·Chemical peeling	4.54	.58	4.56	.50	4.61	.49	4.75	.44	2.061	.105
Job Suitability Cosmeceutical & Medical Skin Care Drug type	4.50	.63	4.46	.50	4.66	.48	4.56	.63	2.406	.067
Medical Scalfcare	4.04 b	.81	4.01 b	.84	4.40 a	.57	4.29 ab	.57	6.519***	.000
Medical obesity management	3.57 b	.75	3.83 ab	.81	4.09 a	.77	4.09 a	.75	7.605***	.000
Non-surgical cosmetic treatment	4.30	.64	4.34	.62	4.34	.57	4.44	.50	.578	.630
Medical Skin Care hygiene management	4.47	.58	4.58	.57	4.43	.59	4.62	.56	1.833	.141

* $p < .05$, *** $p < .001$,

Scheffe's test : a>b

3.3.2.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수행 빈도 차이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수행 빈도는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분석’과 ‘메디컬 스킨케어 레이저·관리기기 및 실무’, ‘메디컬 스킨케어 스킨 스케일링 (필링)·화학박피’,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 ‘메디컬 비만관리’,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요법’, ‘메디컬 스킨케어 위생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분석’($F=7.285, p<.001$)은 3-5년 미만 경력자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메디컬 스킨케어 레이저·관리기기 및 실무’

($F=12.252, p<.001$)와 ‘메디컬 비만관리’($F=3.366, p<.05$), ‘메디컬 스킨케어 위생관리’($F=4.443, p<.01$)는 9년 이상 경력자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메디컬 스킨케어 스킨 스케일링 (필링)·화학박피’($F=3.417, p<.05$)는 5-9년 미만 경력자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F=8.826, p<.001$)와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요법’($F=6.276, p<.001$)은 3년 미만 경력자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수행 빈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medical skincare jobs based on working experience

Classification	Less than 3years (N=70)		Less than 3-5years (N=104)		Less than 5-9years (N=102)		More than 9years (N=55)		F	p
	M	SD	M	SD	M	SD	M	SD		
	Practice of Medical Skin Care & Hospital Reception	3.96	.49	3.89	.43	3.77	.57	3.84		
Medical Skin Care Skin analysis	3.83	.38	3.90	.44	3.72	.61	3.84	.54	2.234	.084
Medical Skin Care Laser and management equipment and practice	3.89 _b	.54	4.00 _{ab}	.44	4.10 _a	.40	4.19 _a	.29	5.908**	.001
Medical Skin Care Skin scaling (Peeling)·Chemical peeling	3.73	.69	3.89	.36	3.85	.41	3.94	.30	2.521	.058
Cosmeceutical & Medical Skin Care Drug type	3.86 _{ab}	.62	3.80 _b	.46	3.88 _{ab}	.56	4.05 _a	.42	2.766*	.042
Medical Scalfcare	3.56	.33	3.38	.47	3.47	.41	3.37	.48	3.368*	.019
Medical obesity management	2.97 _b	.57	3.14 _b	.50	3.17 _b	.68	3.48 _a	.39	8.565***	.000
Non-surgical cosmetic treatment	3.67	.29	3.54	.36	3.57	.41	3.57	.25	2.086	.102
Medical Skin Care hygiene management	4.19	.49	4.15	.69	4.22	.74	4.43	.41	2.469	.062

* $p < .05$, ** $p < .01$, *** $p < .001$,

Scheffe's test : a>b

3.3.3.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난이도 차이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수행 난이도는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분석’과 ‘메디컬 스킨케어 스킨 스케일링 (필링)·화학박피’,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 ‘메디컬 스킨케어 위생관리’,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요법’, ‘메디컬 스킨케어 위생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분석’($F=6.551, p<.001$)

과 ‘메디컬 스킨케어 스킨 스케일링 (필링)·화학박피’($F=4.579, p<.01$),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F=10.606, p<.001$), ‘메디컬 스킨케어 케어’($F=7.191, p<.001$), ‘메디컬 비만관리’($F=3.173, p<.05$),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요법’($F=6.596, p<.001$), ‘메디컬 스킨케어 위생관리’($F=7.464, p<.001$)에서 모두 9년 이상 경력자의 난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스킨케어 직무 난이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4.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medical skincare jobs based on working experience

Classification	Less than 3years (N=70)		Less than 3-5years (N=104)		Less than 5-9years (N=102)		More than 9years (N=55)		F	p
	M	SD	M	SD	M	SD	M	SD		
	Practice of Medical Skin Care & Hospital Reception	3.51	.64	3.61	.47	3.48	.57	3.43		
Medical Skin Care Skin analysis	3.54	.78	3.80	.62	3.49	.57	3.34	.68	7.285***	.000
Medical Skin Care Laser and management equipment and practice	3.67	.71	3.92	.36	3.89	.48	4.20	.35	12.252***	.000
Medical Skin Care Skin scaling (Peeling)·Chemical peeling	3.57	.72	3.76	.28	3.79	.45	3.77	.39	3.417*	.018
Cosmeceutical & Medical Skin Care Drug type	4.00	.49	3.72	.48	3.59	.62	3.78	.43	8.826***	.000
Medical Scalfcare	3.26	.51	3.30	.41	3.20	.49	3.18	.36	1.298	.275
Medical obesity management	2.90	.42	2.83	.53	2.68	.67	2.94	.63	3.366*	.019
Non-surgical cosmetic treatment	3.48	.38	3.42	.53	3.20	.55	3.25	.40	6.276***	.000
Medical Skin Care hygiene management	4.10	.46	4.16	.34	4.14	.74	4.42	.50	4.443**	.004

* $p < .05$, ** $p < .01$, *** $p < .001$,

Scheffe's test : a>b>c

3.4.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결정계수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결정계수는 ‘메디컬 스킨케어 위생관리’ (M=15.2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메디컬 스킨케어 레이저·관리기기 및 실무’ (M=14.71), ‘메디컬 스킨케어와 병원 립셉션 실무’ (M=14.04),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 분석’ (M=13.49) 순으로 직무 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 직무 순위로는 ‘코

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 (M=13.23), ‘메디컬 스킨케어 스킨 스케일링 (필링)·화학박피’ (M=13.22),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요법’ (M=11.40), ‘메디컬 스킨케어 케어’ (M=10.78), ‘메디컬 비만관리’ (M=8.56) 순으로 결정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실무경력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직무의 결정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5. Differences in the difficulty of medical skincare jobs based on working experience

Classification	Less than 3years (N=70)		Less than 3-5years (N=104)		Less than 5-9years (N=102)		More than 9years (N=55)		F	p
	M	SD	M	SD	M	SD	M	SD		
	Practice of Medical Skin Care & Hospital Reception	3.70	.64	3.66	.51	3.54	.55	3.66		
Medical Skin Care Skin analysis	3.62 _a	.59	3.63 _a	.53	3.45 _{ab}	.74	3.16 _b	.90	6.551 ^{***}	.000
Medical Skin Care Laser and management equipment and practice	3.75	.54	3.64	.44	3.61	.56	3.50	.72	2.093	.101
Medical Skin Care Skin scaling (Peeling)·Chemical peeling	3.65 _a	.38	3.40 _{ab}	.55	3.40 _{ab}	.68	3.31 _b	.58	4.579 ^{**}	.004
Cosmeceutical & Medical Skin Care Drug type	3.65 _a	.58	3.55 _a	.70	3.31 _a	.90	2.90 _b	1.06	10.606 ^{***}	.000
Medical Scalpcare	3.24 _a	.72	3.28 _a	.65	3.08 _a	.80	2.73 _b	.84	7.191 ^{***}	.000
Medical obesity management	2.84	.59	2.77	.64	2.59	.68	2.58	.75	3.173 [*]	.024
Non-surgical cosmetic treatment	3.32 _a	.53	3.30 _{ab}	.64	3.00 _{bc}	.69	2.97 _c	.70	6.596 ^{***}	.000
Medical Skin Care hygiene management	3.63 _a	.67	3.80 _a	.65	3.66 _a	.83	3.22 _b	.81	7.464 ^{***}	.000

* $p < .05$, ** $p < .01$, *** $p < .001$,

Scheffe's test : a>b

4. 결론

본 연구는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의 실무경력에 따른 직무의 적합도와 중요도, 빈도, 난이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실무 경력에 따라 직무의 적합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메디컬 스킨케어와 병원 리셉션 실무',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분석', '메디

컬 스킨케어', '메디컬 비만관리'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업무가 개인이 교육을 받은 수준과 비슷하고 소유한 기술 수준에 알맞으며, 대학의 전공과 일치하는 것을 직무의 적합도가 높다고 하였다[14]. 선행 연구에서 메디컬 스킨케어 교육과정으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 직무능력표준) 피부미용 능력단위 중에서 '피부미용 고객상담', '피부미용 분석',

Table 6.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medical skin care practical job

Classification		M	SD
Medical Skin Care job	Practice of Medical Skin Care & Hospital Reception	14.04	2.92
	Medical Skin Care Skin analysis	13.49	3.70
	Medical Skin Care Laser and management equipment and practice	14.71	2.94
	Medical Skin Care Skin scaling (Peeling)·Chemical peeling	13.22	2.68
	Cosmeceutical & Medical Skin Care Drug type	13.23	4.04
	Medical Scalpcare	10.78	3.15
	Medical obesity management	8.56	2.83
	Non-surgical cosmetic treatment	11.40	3.02
	Medical Skin Care hygiene management	15.28	3.93

‘두피(스켈프) 분석’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10]. 상담업무를 주로 하는 리셉션 실무와 피부 분석, 스킨케어는 메디컬 스킨케어 영역에서 피부 미용사로서의 직무에 적합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또 ‘메디컬 스킨케어와 병원 리셉션 실무’와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분석’이 3년 미만 경력자의 실무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3년 미만의 경력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직무임을 의미하였다. ‘메디컬 비만관리’는 실무경력이 9년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3년 미만 경력자의 적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비만관리 직무의 경우 경력이 높을수록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실무 경력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메디컬 스킨케어 레이저·관리기기 및 실무’와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 ‘메디컬 스킨케어’, ‘메디컬 비만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5]에서 의료 미용사의 의료 미용 직무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레이저 후의 주의사항 후 관리 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와 ‘메디컬 비만관리’에서 9년 이상의 경력자들에서 직무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은 화장품을 뜻하는 단어

코스메틱(cosmetic)과 약품을 의미하는 단어 파마슈티컬(pharmaceutical)의 치료 개념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현재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은 병원 전문가들에 의해 판매가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나타났다[16], 해당 피부과의 인지도나 신뢰도가 구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17],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경력자들의 직무로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메디컬 스킨케어 레이저·관리기기 및 실무’에서 3년 미만 경력자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4년 연구에서는 의료미용 실무현장에서 교육과정으로 ‘의료미용 기기 관리’가 직무의 중요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신입직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18]. 반면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피부미용사의 주된 직무인 스킨 스케일링, 이온토포레시스와 같은 미용 기기 관리보다 써마지, 울세라, 플라리스, 보톡스, 필러요법, MTS, 레이저 필링, 물리적 박피, 실리프팅과 같은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메디컬 시술 이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이것은 현재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 부분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로 피부미용사로서 할 수 있는 관리기기 실무 빈도가 낮아져 직무의 중요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실무경력에 따라 직무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분석’과 ‘메디컬 스킨케어 레이저·관리기기 및 실무’, ‘메디컬 스킨케어 스킨 스케일링 (필링)·화학박피’,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 ‘메디컬 비만관리’,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요법’, ‘메디컬 스킨케어 위생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분석’에서 3-5년 미만 경력자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메디컬 스킨케어 레이저·관리기기 및 실무’와 ‘메디컬 비만관리’, ‘메디컬 스킨케어 위생관리’는 9년 이상 경력자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레이저 후의 주의사항 후 관리 인지’에서 중요도뿐만 아니라 실행 빈도에서도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15] 우리 연구와 일치하였다. 메디컬 에스테틱션의 직무 중에서 소모품 관련 소독 유지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었으며[20], 우리 연구에서 9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위생관리 직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위생관리가 메디컬 스킨케어에서 가장 빈도 있는 직무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메디컬 스킨케어 스킨 스케일링 (필링)·화학박피’는 5-9년 미만 경력자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와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요법’은 3년 미만 경력자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무경력에 따른 빈도는 현장에서 실무경력에 따라 실제로 많이 하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실무경력에 따라 직무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분석’과 ‘메디컬 스킨케어 스킨 스케일링 (필링)·화학박피’,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 ‘메디컬 스킨케어 케어’, ‘메디컬 비만관리’,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요법’, ‘메디컬 스킨케어 위생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문제성 피부 관리에 많이 이용되는 박피관리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희망하였고[21],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문지식이 고객 상담이며 실제 실무에서 어렵고 추가 교육이 필요하고 하였으며[22], 피부클리닉 코디네이터의 병원 업무와 관련해 더 배우고 싶은 분야로 전문지식 및 테크닉, 고객응대 및 상담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실무경력에 따른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

직무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분석’과 ‘메디컬 스킨케어 스킨 스케일링 (필링)·화학박피’,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스킨케어 약물의 종류’, ‘메디컬 스킨케어 케어’, ‘메디컬 비만관리’,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요법’, ‘메디컬 스킨케어 위생관리’에서 모두 9년 이상 경력자의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9년 이상 경력자의 수준은 병원코디네이터, 관리자, 간호 파트 등 메디컬 스킨케어를 담당하는 업무가 가능한 전문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며, 근무 경력이 증가할수록 업무능력 수준도 증가한다는 결과[23]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메디컬 스킨케어 영역 이해, 레이저 필링 후 주의사항 및 후 관리 인지, 필러·보톡스, 필링과 박피 등을 포함하는 의료미용의 하위 직무별 수행도가 난이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 하였다[11].

다섯째, 본 연구에서 실무경력에 따른 직무의 중요성이 높은 항목은 결정계수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결정계수는 중요도와 난이도를 곱해서 얻은 값으로 직무의 결정계수가 높을수록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로 이것을 수행하는 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메디컬 스킨케어 실무경력에 따른 결정계수의 결과는 상위 직무 순위로 ‘메디컬 스킨케어 위생관리’, ‘메디컬 스킨케어 레이저·관리기기 및 실무’, ‘메디컬 스킨케어와 병원 립셋션 실무’ 등으로 이와 관련한 직무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선행 연구[11]에서도 메디컬 에스테틱 종사자 직무 역할의 수행도와 난이도에서 ‘소독 위생 처리’가 가장 높게 나타나 메디컬 환경에서 가장 필수요소인 위생 부분에 대한 개념과 목적을 알고 소독과 멸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의 실무경력에 따른 직무의 적합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부미용 전공 교육과정이 메디컬 스킨케어에서 스킨케어 직무에서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직무의 실제 현장에서 빈도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았고, 실무 경력에 따라 난이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나아가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들의 직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전문성 있는 직무로 체계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H. J. Park, S. H. Park, "The Effects of Beauty Involvement on Self-Satisfaction by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Group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16, No.1, pp. 137-144, (2014).
2. M. K. Song, M. S. Kim, "A Comparative Study of the Utility Status & Customer Satisfaction on Medical Esthetics and General Esthe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sthetics & Cosmeceutics*, Vol.3, No.1, pp. 58-72, (2008).
3. S. Y. Lee.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using medical esthetics and hospital selection attributes", Chung-ang University a Master' thesis. (2010).
4. J. Y. Shin, J. D. Kim, "A Study on Awareness of Medical Skincar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15, No.3, pp. 786-802, (2009).
5. J. E. Lee, E. Y. Choi, "A Study on the State of Medical Skincare and Satisfaction Level", *Korean Society of Cosmetics and Cosmetology*, Vol.5, No1, pp. 73-87, (2015).
6. E. J. Jung., "A study on the medical esthetic condition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reformation plan", Chung-ang University a Master' thesis. (2007).
7. S. Y. Cho,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f Medical Skincare Aesthetician on Service Quality",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Vol.13, No.3, pp. 267-276, (2017).
8. H. R. Shin, "The Effect of the Job Demands of Professional and Job Satisfaction on Medical Skin Therapist", Songwon University a Master' thesis. 2018.
9. M. J. Kim, "Affecting Factors for Job Stress and Client Service of Estheticians in the Medical Beauty Industry",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17, No.2, pp. 157-168, (2019).
10. S. H. Lee, E. Y. Choi, "A Study on the Curriculum for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on Competency Unit Element of Medical Skin Car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4, pp. 491-500, (2018).
11. J. H. Mo, S. J. Oh, "Analysis of Job Performance and Difficulty for Medical Skin care Employees",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Vol.20, No.1. pp. 37-50, (2019).
12. H. S. Yoo, S. Y. Shim, M. S. Kim, "The Job Analysis of Head Hospital Coordinators Based on the DACUM Method",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21, No.3. pp. 37-52, (2016).
13. G. M. Dang, J. H. Kim, "A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plastic surgery medical tourism coordinators for Chines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8, No.2. pp. 23-49, (2019).
14. Y. A. Ha. "The Influence of Job Value Types and Job Suitability of College Graduates on First Job Satisfaction: Applying a Potential Group Analysis Model", Kyunggi University a Master' thesis. (2018).
15. J. H. Mo, S. J. Oh, "An Analysis of Importance and Practice of Job in Medical Esthetic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4, No.2, pp. 320-327, (2018).
16. S. H. Park, H. J. Kwon, "Customers' Convergent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about Cosmeceutica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2, pp. 459-464, (2017).
17. K. J. Kim, H. S. Han, "Marketing Strategies and Consumer Recognition of Medical Cosmetics",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16, No.4, pp. 569-578, (2018).

18. J. W. Hwang. "Study on the need for medical beauty education", Konkuk University a Master' thesis. (2014).
19. H. Y. Lee, E. S. Kim, "A convergence study on middle-aged women's beauty interest, medical skin care visit intention, experienc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8, pp. 309-316, (2020).
20. S. J. Oh, J. H. Mo, "A Job Analysis of Medical Estheticians Using IP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24, No1. pp. 391-400, (2018).
21. J. I. Kim,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education of medical skin care",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1, No.2, pp. 9-18, (2003).
22. H. Y. Lee, K. A. Lee, "The Occupational Conditions of Medical Skincare Estheticians Working in the Dermatology Clinics",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10, No.1, pp. 69-78, (2012).
23. H. W. Kim, "Working condition and reality of skin clinic coordinator and job improvement", Chung-ang University a Master' thesis. (2017).